노인 급증 … 사회불안·세대갈등 심각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4

고령화사회

지난 92년 국제연합(UN)은 매년 10월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정했다. 또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한 뒤 국가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노인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엔은 노인의 해 기본이념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로 명시, 노인의 사회참여와 세대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범지구적인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21세기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 각 국가는 노인복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한 권고의 메시지이다.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에게도 노인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를 엄습한 지난 1년간 탑골공원, 남산 등을 배회하면서 급식소에서 주는 한끼의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결식노인들을 보면서 노인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절감한 한 해이기도 했다. 〈편집자 주〉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세계의 노인문제

세계인구 60억명중 80세이상의 초고령자는 6천1백만명이나 된다. 인구 1백명당 거의 한명인 셈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21세기 중반인 서기 2050년에는 80세이상 노인이 지금보다 5배나 많은 3억1천1백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유엔의 추산이다. 이때가 되면 세계인구가 90억명에 달할 것이므로 30명당 한명이 80세 이상인 초고령화시대가 된다는 계산이다.

고령화는 보통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노년인구 비율을 지표로 삼는다. 노년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금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는 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백5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6%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맞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20세기는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발전의 시대였고 그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됐다.

◇한국의 노인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울 탑골공원.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노인들이 몰려 이들의 설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복지제도 강구 빈곤·질병·소외등 4苦 해결
"일체 중생 내 부모" 孝의 사회화운동 전개

인구의 노령화는 노동력의 노후화와 세대간 갈등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노령층의 절반 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어 도시화 가속과 인구이동·사회불안 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특히 전세계 노령층의 80% 이상이 살고 있고 노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사회복지제도나 대책이 거의 무방비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선진국에서조차 21세기에는 연금 부담자와 수혜자의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인인구는 일반적으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과 소외감, 신체적 노쇠에서 발생하는 병고, 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 등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특성때문에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황혼기의 여생을 무난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각별한 법제적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문화와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 결식노인 42만명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강남대 노인복지학과 고양곤 교수팀이 최근 서울 탑골공원에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한끼만 먹는 노인이 전체의 4%, 두끼를 때우는 노인이 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2만여명의 노인이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자들은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보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이 50만~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는 약 7%, 2022년에는 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가족의 부양기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의 약 87%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질환을 앓고 있다. 중증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도 약 38만명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들을 위한 재가보건복지서비스는 매우 미약하다. 양로·요양시설 역시 전국 1백66개소에서 약 1만3천명의 노인만이 보호받을 뿐이다. 이는 전체 노인수의 0.42%로 선진국 수준(3~5%)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도 우리 사회보장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노인의 약 55%는 월 평균 20만원이하의 소득으로 열악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급액 인상 등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결국 한국의 노인은 수입 중단, 건강 악화, 역할상실(권위 추락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 고립과 소외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숙식뿐만 아니라 의료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국가 기업 병원 등이 삼위일체가 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미풍양속에 못지 않은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불교적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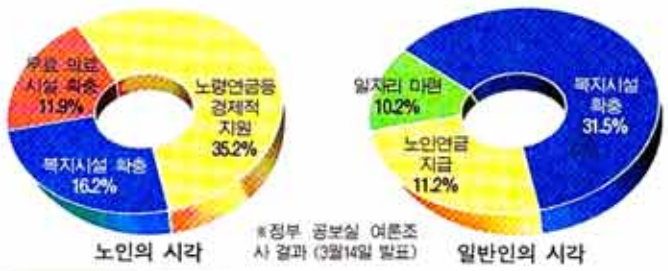
어느날 싯달타 태자는 가비라성의 동·남·서·북 4문으로 나가셨는데, 동문에서는 늙은 이를 보고, 남문에서는 병든 이를 보고,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북문에 나가서는 사문을 보고 드디어 출가의 뜻을 세웠다고 한다. 즉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을 본 것이 출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고(苦)는 불교의 중요한 테마중의 하나였다. 즉 노인문제의 4고(苦)로 불리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도 따지고 보면 불교의 8고(생·로·병·사·怨憎會苦·愛別離苦·救不得苦·五陰盛苦)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복지, 정신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이타행을 통한 자기의 완성, 지혜의 완성으로 모든 노인들이 보살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모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진정한 효라고 보는 불교의 효사상을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효의 개념으로 정립해 노인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 공보실 여론조사 결과 (3월14일 발표)

불교노인복지 현황

전국 사찰 복지요람으로

교계 노인시설 35곳뿐
급식·병원·상담소 늘려야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복지시설은 98년 10월 현재 1백85개(무료 1백52개, 유료 17개, 실비 16개). 여기서 노인 전용의 불교복지시설은 35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약 19%에 해당된다. 물론 비인가시설을 포함하면 불교계의 노인복지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인덕노인복지회관 등 4개의 노인종합복지관(진각복지회와 인덕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수탁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제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12개의 무료 노인병원, 대구보살선원 등 5개의 유료 노인복지주택, 용인양로원 등 17개의 무료양로시설, 성지원 등 5개의 요양시설 등 50여개 이상의 불교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사진은 불교사회봉사회의 서울 종묘공원 무료점심 공양 장면.

이밖에 노인전용 복지시설을 포함, 다른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복합복지시설도 많다. 사찰 및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노인대학과 40여개의 경로식당, 5개의 복지관 노인의집(노인 그룹홈)을 비롯 복지관의 노인주간보호소, 무료진료소, 노인상담전화, 이동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 아직은 노인복지의 초보단계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교계의 복지정책도 이제는 무의탁 양로원이나 보육원같은 수용시설보다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센터의 확충과 무료급식소, 무료병원, 노인문제 상담실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사찰이 노인복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주지스님들이 '효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불교 신도의 상당수를 점유하는 노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생활불교·실천불교로 거듭날때 불교는 21세기 고령화사회를 선도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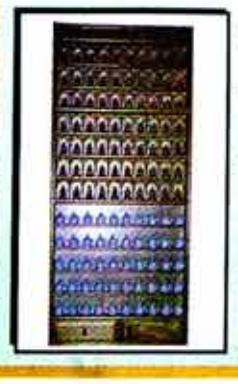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새디자인의 팔모 조립등
간편하며 눈비에 파손되지 않는 실용적인 팔모 조립등이 곧 출시됩니다.
· 규격 : 13cm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 주문제작
※천불전 조성합니다.

■찬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건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 덕 연 등 제 작 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레이키 20세기의 기적. **그날로 氣치료 능력자가 된다.**

수련을 하지 않고도 그날로 氣치료 능력자가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레이키(REIKI)법이 그것입니다. 확실한 자격이 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어튠먼트)를 받기만 하면 그날로 氣치료 능력이 발현됩니다.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 비법(레이키법)은 근세 일본의 도통자 우스이 미카오씨에 의해 발견되고 계발된 이래 1930년대에 하와오타카타 여사에 의해 미국으로 도입되어 급속하게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간략화, 민주화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 비법은 인류의 새로운 「氣치료법」으로서, 새로운 「氣문화 자산」으로서, 새로운 「氣과학」으로서 관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의 의료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급이 확산되면서 氣치료 능력자를 양성하는 방법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으로서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1백만명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3백만명 이상의 레이키 요법가(氣치료 능력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자격

나는 氣와 정신세계 관련 번역 저술가로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다가 1985년부터 세계의 간행물을 통해 「레이키계」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가 국민의 의료복지의 향상을 위해 이를 도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987년부터 도합 7~8회에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의 「Reiko Ono 협회협회」의 아오키(青木)선생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 特別 레이키의 우에노선생, 가이야 레이키의 노가키 선생, 카루나레이키의 호스트랄리계의 일러튼 카루무라선생, 영국계의 마키트리스 선생에게서 일본 고유의 전통적 레이키법, 미국에서 표준화된 서양식 레이키법, 1985년에 미국에서 새로 등장한 카루나(자비) 레이키법(신인류)과 영성의 개안에 다소 높은 효과를 입증하는(본 전수받아 세계의 「레이키 문화」를 복습에 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후임자에 다채로운 레이키법 전문 교육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능력도 탁월함양 향상하고 있어 최근에 레이키법을 전수받는 분들에게는 아울 많은 氣체험, 신비체험을 일으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체험담들을 참고하십시오.

체험담

1. 어느 기공사(42세) 어튠먼트를 받을 때 박희준 선생님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몸의 중심(중력)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전동은 더욱 깊은 속에서 일어났고 더욱 정밀한 파장으로 느껴졌다. 배꼽부터 신선하고 상쾌한 기운이 몸의 안팎으로 마치 폭포수 같이 흘러 내린 것을 느꼈다. 전수받고 난 후에 길을 걸을 때에도 하늘과 땅의 氣의 기둥으로 이어진 느낌이었다.

2. 어느 보살(48세) 어튠먼트를 받는 순간 자세의 붕괴 같은 것이 하늘과 땅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 이마로 들어오는 듯하더니 몸 전체에 가냘프게 전동이 일어났다. 그 하루부터는 한편의 황홀경 속에 심겨 있다가 다 끝났으니 눈을 뜨라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무아경을 실제로 맛보고 나니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3. 어느 보살(63세) 어튠먼트를 받을 때 가슴 한가운데서 파란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더니 한 순간에 엄장과 멧힌 탄이 싹 씻겨 나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다. 해탈과 열반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면 이 순간이야말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한다.

4. 어느 스님(40세) 어튠먼트를 받는 순간에 우주와 나 사이에 벽이 없어지면서 宇宙即我 我即宇宙의 일체감과 안심입명의 경지 같은 것을 맛보았다. 기공수련도 이것이것 해 보았지만 레이키법이야말로 진짜이다. 전수받은 다음 날부터 절의 도반스님과 신도 몇 분을 치료해 주었는데 병이 쑥쑥 잘 낫는 것을 보니 레이키 공을 새로 장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5. 한 불자(38세) 국내외의 여러 기공법들을 섭렵하면서 중국의 장모라 하는 기공사에게서 氣도 받아 보았다 그 氣는 몸에 작용하는 힘은 굉장히 센 것 같았지만 마음에 주는 충일은 없었다. 그러나 박희준 선생님의 레이키는 가냘픈 듯하면서도 나의 감정과 마음, 영혼속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잔잔하게 작용을 미쳐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입속 얼드려서 감사의 큰 절을 드렸다.

6. 어느스님(56세) 제3단계의 어튠먼트를 받고 최고의 상징을 선생님에게서 전해 받았을 때 비로자나불과 대일여래로 상징되는 근원의 우주 생명에너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결이 레이키법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여타의 氣치료법과 다른 레이키요법의 특징
1 자기가 자기의 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
2 원격치료를 쉽게 할 수 있다.
3 한자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집단 치료를 할 수 있다.
4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정해져 있어 쉽게 배울 수 있다.
5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키(氣)를 자유자재로 끌어다 쓸 수 있다.
6 부작용이 없고 氣가 소모되지 않는다.

·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능력의 전수는 어튠먼트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몇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 1단계 : 2일,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전문임상응용단계 : 2일 + 2일 ※무료 재교육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레이키요법의 유효 분야
2천가지 이상이나 된다는 사람의 질병 대다수는 작건 크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레이키요법은 이런 질병 모두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가벼운 질환들에 대하여는 즉효성의 효과도 발휘하고, 응급 상황과 정신신경과 질환 일반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간호부 이와 호스피스에서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음이 미국 등지의 종합 병원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